

탈레반의 실체와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 분석

최기남*

요 약

올해 말로 파병기간이 마무리되는 우리나라는 3월 핵안보정상회담, 5월 EXPO개막 및 총선, 대선의 선거철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탈레반의 테러를 통한 철군여론조성전략에 우리나라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탈레반 테러홍보전략과 부합하며 과거 사례에 따른 학습효과이다. 이에 따른 탈레반 테러위협의 가능성을 요약한다면 위협의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핵안보정상회담과 EXPO가 개막되는 상반기에 집중 고조될 것이며, 대상과 방법은 국내 정부기관이나 미국시설물 등에 대한 자살폭탄, 폭탄적 제차량의 추돌 테러 가능성과 국외 관광객, 선교사 등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범행에 가담할 테러조직으로는 국내에 이미 거점을 확보한 이슬람 불법체류자들 이용하거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전문 테러리스트의 입국 공작이 우려 된다. 이러한 테러의 명분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우리군 및 서방 동맹군의 철수일 것이다.

따라서 올 전반기 세계핵안보정상회담, 여수EXPO 등 국제행사의 안전대책과 해외 체류 내국인에 대한 탈레반의 홍보성 테러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하며,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의 동향 파악과 탈레반 관련 국제테러리스트의 국내 잠입의 차단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우리 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조기 표명할 필요가 있다.

Analysis of True Nature of Taliban and Terror Threat to Korea

ABSTRACT

Our nation, of which the term of dispatching troops is winded up at the end of this year, is facing presidential election time including the nuclear security summit meeting in March, opening of EXPO in May, and the general election. Hence, the possibility to select our nation at the strategy forming public opinion of military withdrawal through Taliban's terror is high. It coincides with public affair strategy of Taliban terror and learning effect by the past cases. If the possibility of terror threat of Taliban along with this is summarized, the period of threat will concentrate on and be heightened in the first half when the nuclear security summit meeting and EXPO open in our nation, and target and method have high possibility of collision terror of bomb carrying vehicle and suicide bomb on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s or American facilities, and etc, and possibility of kidnapping on our people such as oversea tourists, missionaries, and so on. Terror groups joining the criminal act is to use Islam illegal aliens who already acquire base in our nation or entry maneuver of specialized terrorists connected to Al-Qaeda. Pretext of such terror is withdrawal of our military and western allies stationed in Afghanistan.

Therefore, publicity terror of Taliban against our people living overseas and security measure of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world nuclear security summit meeting, Yeosu EXPO, and etc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should be thoroughly prepared, domestic illegal aliens' movement should be comprehended, and measure blocking international terrorists' relating to Taliban infiltration into our nation should be sought for. Also, there is need of early announcement of government's political will on our military stationed in Afghanistan.

Key words : Taliban terror, the nuclear security summit meeting and EXPO open

접수일(2012년 2월 29일), 수정일(1차: 2012년 3월 14일),
게재확정일(2012년 3월 19일)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 서론

2001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테러의 범인이 알카에다이며 이를 주도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은거하며 탈레반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미국과 서방제국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미국은 이슬람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9.11테러에 대한 응징과 보복으로 알카에다의 소탕과 탈레반의 괴멸을 목표로 실행한 “항구적 자유작전(Operation of Enduring Freedom)” 군사작전에서 개진 3개월 만에 군사적 승리를 선언하였지만 탈레반 잔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하게 몰아내지 못한 채 어설픈 승리를 자축할 수밖에 없었고,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수많은 인명과 재정의 손실을 강요당하며 안정화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은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를 잃는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와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연합군으로 참전한 바 있다. 우리정부는 의료지원단 등 비전투요원만을 파견하였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과 주변국 경제지원에 1,2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4,500만 달러 지원을 공약하였음 [2] 에도 불구하고, 탈레반 등 이슬람테러세력들은 기독교 서방세력과 공조한 군사행동은 이슬람권에 대한 적대행위로 인식하고 우리를 잠재적 적국으로 분류하여 테러대상으로 낙인하였으며 수차례 걸친 테러와 국내외적인 테러위협을 가해 왔다 [3] .

2003년 말부터 자이툰부대의 추가파병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태국에 근거지를 둔 AKIA, YROO, Abu, Sayab 등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은 반한단체 들의 협박편지와 동남아 거주 교민이나 시설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테러 협박이 고조되었으며, 2004년 파병안이 가결되자 아랍 언론들은 대규모 파병 사실을 확대 보도하였고 급기야 6월에는 미 군납업체 직원인 김선일이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유일신과 성전”조직에 납치되고, 추가 파병안의 철회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참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4] . 2007년에는 탈레반의 반격이 고조되어 카블의 함락설

이 유포되는 등의 위기가 조성되고 아프가니스탄내의 테러, 치안정세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반전 철군 여론조성을 위한 테러 위협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우리나라의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7월19일 샘물교회 선교봉사단 23명이 카블에서 칸다하르로 이동 중 가즈니 주에서 탈레반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5] . 이들은 한국군의 조기철수와 탈레반 수감자 석방을 요구한 바 있고 인질 2명을 살해하였으며, 우리정부의 철군을 약속받고 나머지 인질을 석방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이행한 바 있다.

탈레반은 우리 군이 재 파병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대표적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이며, 미국과 동맹군의 대테러전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이슬람테러리즘의 중심체이다. 또한 우리에게 대한 테러위협의 주체였으며 능력과 의지를 가진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다. 탈레반은 역사적으로 오랜 투쟁과 저항의 역사를 가진 아프가니스탄민족의 끈질긴 민족성과 이슬람원리주의 수니파 이념에 교조적인 이상을 가진 폭력적 무장테러조직인 동시에 민중의 지지를 받는 아프가니스탄 최대의 정파 조직인 것이다 [6] .

현재 탈레반을 중심으로 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상황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비대칭적인 군사작전은 미국의 승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으나 이 민족과의 전쟁과 강대세력에 대한 저항에 익숙한 이들의 의지까지 꺾을 수는 없었으며, 잠시 남부 칸다하르 산악지역으로 밀렸던 탈레반의 반격과 주변국의 정세 변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탈레반의 공세에 대응한 새로운 군사작전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동맹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서방 동맹군에 대한 권위와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국가재정적자가 심화되고 국민들로부터는 세계분쟁지역에서의 군대철수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중동의 현지상황은 우리나라에도 국내 상황과 연계되어 이슬람테러위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14개국 31개주에서 PRT(지역 재건팀/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2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7] .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으로부터 군 철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도 올 여름까

지 주둔군의 3만 3천명의 철수를 발표한 바 있어 철군의 규모와 시기가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고, 프랑스, 영국, 독일도 곧 철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8]. 또한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 철군결의안이 발의(민주당 안규백의원 2011.7.1)된 상태이다.

주요국의 철군이 시작되고 우리의 파병기간이 올해 말로 다가오는 현시점은 우리에게 대한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이 고조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007년 샘물교회 인질사건의 협상결과와 군 철수의 학습효과이다. 탈레반에 의한 한국에 대한 테러는 우리군의 현지 파병 활동시기의 시작과 마무리 해에 집중된 바 있으며 요구사항도 군대의 철수와 탈레반 수감자의 석방, 이슬람지역에 대한 기독교의 포교활동금지였다. 미국의 재정문제로 인한 영향력 감소를 기회로 하여, 파병 중인 주요국에 대한 철군압력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테러로 한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3월말 세계 매스컴의 초점이 될 세계핵안보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5월 여수 세계 EXPO 개막 및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한국군의 조기 철군을 명분으로 한 테러리즘이지만 그들의 세계적 철군 여론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홍보전략과 합치되는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외진출 기업이 늘어나고 해외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 위협요인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건설현장 등은 우리 군대의 파병이나 철군 등의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현장 습격, 근로자 납치 등 심각한 테러와 위협을 겪어 온 경험에 있다.

본 논문은 탈레반의 실체를 전통적 민족성과 종교적 이념, 집권경험을 가진 정파조직으로서의 정치성을 고찰하고 최근의 아프가니스탄의 주변상황과 테러사례를 통해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한 세계핵안보정상회담, 여수 EXPO, 각종선거철 및 군 파병 종료시점의 탈레반 테러위협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경계대책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2. 탈레반의 실체

2.1 Afghanistan 민족의 역사적 배경

아프가니스탄은 파미르고원 연장의 대륙 중심부에

위치하여 북부 아무다리아강을 통한 중앙아시아와 통하고 있으며, 동부는 인더스강 유역, 서남부는 헤라트에서 이란과 연결되는 동서교류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긴 인간거주의 흔적과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관점에 따라서는 동서교역의 중심으로 실크로드의 길목이라는 경제와 문화적 화려함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 신흥세력의 확장다툼의 각축장으로 여러 민족과 언어, 종교적 침략을 포용하며 전쟁으로 점철된 생존을 위한 저항과 투쟁의 고난이라는 역사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기원전 1500년경 코카서스산맥을 넘어 아리아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왔고 철기문화의 유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르아스터교의 이란 민족과 관계를 맺어 왔다. 기원전 550년에서 486년까지는 다리우스대제의 광범위한 통치의 지역적 중심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으로 동서문명의 만남의 장으로서 그리스문명과 인도문명의 교합으로 간다라미술의 상징인 불상을 탄생시키고 전파한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기원전 250년 경 북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왕조, 기원전 175년의 박트리아왕국 등, 주변에서 융성하는 수많은 강대세력에 의한 점령과 지배가 지속되었다. 저항과 투쟁으로 면면히 이어온 오랜 고난의 역사는 서기 60년에 이르러 쿠산 왕국을 이루고 선진 불교문화를 형성하였다. 이후 서기652년에 아랍세력의 확장으로 이슬람왕국이 시작되고 징기즈칸의 침공으로 국토가 황폐화되는 시련을 겪었으나 이슬람의 전통은 유지되었다. 1397년 몽골의지배가 끝나고 1526년 무굴왕조를 이루었으나 이란의 사파비왕조와 분할되었고 지속적인 외세의 압박을 받아왔다. 1747년 칸다하르에서 아프간족의 주요 부족이 국가를 세우고 아흐마드샤두라니라 칭하며 최초의 민족국가로 출범하였으나 왕위쟁탈과 내분이 거듭되었다 [9].

19세기에 이르러 남하정책을 시행하던 제정러시아와 인도방위 측면에서 위협을 느낀 영국의 충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자국의 세력 하에 두려는 양측의 침략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제1차(1838-1842), 제2차(1878-1880)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친 결과는 외교권을 인도에 양도하고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으며, 1907년 제정러시아도 이를 인정하였다. 1930년대에 온건한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1973년 좌익 파르

캄(깃발)이 지원한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군주제가 폐지되고 친소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9].

친소정권내의 정파적 내분과 개혁정책의 실패 등으로 지역적 반란¹⁾이 지속되자 1979년 기존정권의 수호 명분으로 소련군의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되었고, 미국과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이슬람 무자헤딘의 저항운동이 이어졌다. 제1, 2차 세계대전 및 동서 냉전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소련은 1979년 남쪽 진출을 목적으로 무력 침공했고 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많은 희생과 좌절을 경험하고 군대를 철수했으며, 소련연방의 해체로 이어졌다 [10].

10여년의 저항과 희생이 있는 후 1989년 소련군이 철수하였으나 외세의 개입과 무자헤딘 내의 종파 간 내분으로 갈등은 지속되었고 내전으로 비화되었으며, 혼미를 거듭하던 1994년 이슬람 율법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탈레반²⁾이 학정에 시달리던 민중의 지지를 받아 무장투쟁 2년 만에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집권에 성공하였다.

국토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집권에 성공한 탈레반은 극단적인 이슬람원리주의의 표방과 율법의 강요, 여성 억압, 이슬람 외의 타 종교, 문화의 탄압 등 국제적인 고립과 테러지원 등으로 경제제재를 자초함으로써 인민의 경제적 극빈과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켰다.

탈레반 정권은 2001년 발생한 9.11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미국과 대립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연합군과 전쟁을 강행하였으며, 군사적인 참담한 패배와 함께 산악지역으로 밀려났다.

이 후 아프가니스탄의 현 친미 정권은 2001년 11월 26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4개 정파 회의에서 합의한 파슈툰족의 하미드 카르자이를 수반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집권하였다. 그러나 카르자이 집권 후 현 시점까지 전후 복구를 위한 서방세력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의 장악력 부족과 부패, 탈레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종파의 내분과 저항, 테러로 인한 정국의 혼미 등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내전상황은 탈레반의 새로운 투쟁동력의

재충진과 지배지역의 확대로 이어지고, 정부청사나 인접 파키스탄에 대한 테러 등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서방세력의 군사력 증강 강요, 유엔의 개입 강화 등을 불러오고 있다.

2.2 탈레반의 형성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수많은 거대세력의 침략과 지배에 의한 고난의 역사를 간직한 아프가니스탄의 저항과 투쟁의 원동력은 수많은 부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전투적 결사체인 퀘(Quwm)³⁾이라는 군사, 정치, 경제의 부족공동체였다. 아프간인의 퀘에 대한 충성은 종교나 국가뿐 아니라 어떤 다른 이념보다 강하고 우선적이다. 이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유일한 생존을 보장해준 결사체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성격의 퀘는 특히 외세의 침략이 있을 경우 크고 강한 군사적 부족공동체로 나타나게 되며, 19세기 대영제국의 인도 아시아 서북변방정책으로 일어난 1, 2차 아프간전쟁(1839-1842, 1878-1880)과 1979년의 소련의 침공 시에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다양한 민족의식과 종교적 이념이 혼합된 전통적인 퀘는 이슬람의 전래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1965년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시 캐시미르에서 파키스탄이 영토분쟁이 아닌 종교전쟁으로 몰아 범 이슬람권의 지원을 받기위해 아프가니스탄 파슈툰족의 퀘를 무자헤딘⁴⁾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무자헤딘은 1979년부터 대소투쟁의 핵심이 되었고, 이후 칸다하르 인근에서 이슬람 교리학교 마드라사⁵⁾를 운영하고 있던 이슬람 지도자 오마르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무자헤딘 무장세력을 1995년 파키스탄 ISI(Inter Services Intelligence)⁶⁾가 아프가니스탄의 순수한 종교개혁의 추진이라 하여 무자헤딘 퀘를 탈레반이라 칭하게 된다. 즉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전통적 저항과 투쟁의 상징적 공동체에 강한 종교적 이념을 불어 넣은 무장 이

1) 1979년 3월 헤라트 에 있는 제 17 아프간 보병사단 전체가 반란을 일으켜 40명의 러시아 교문단과 가족을 살해했다

2) 탈레브 혹은 탈리브(talib)은 전통식 이슬람학교(마드라사) 등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

3)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적 전통을 가진 부족공동체로 종교, 경제, 외세에 대한 저항 등 부족의 생존과 이권 등 위기극복을 위해 나타나는 국가조직을 초월한 연합체

4) 무자헤드(مجاهد)의 복수이며 이슬람의 성전(지하드)에서 싸우는 "전사"를 의미한다

5) 이슬람 신학교, 현재 이슬람교리만을 가르치지 않고 지하드, 실천 테러 훈련소로 변화됨

6) 파키스탄의 국가정보기관

슬람 부족공동체로서 정통성을 이어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오늘의 탈레반의 시작이다 [11]. 이들 탈레반은 가장 순수하며 강력한 이슬람의 순수 교리로 철저한 금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민중 저변으로 접근하였으며, 다른 정치세력이나 군벌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식되었다. 청빈한 모습으로 순수 이슬람 이상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기댈 곳 없던 대중들의 민심이 급격하게 동화되었고, 결국 그들은 대중들의 무한한 지지 속에 최대 정치세력으로 성장, 수도 카블에 무혈 입성하여 집권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강력한 이슬람 수니파정권으로 원리주의에 의한 교조주의적인 통치스타일을 유지하였다. 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미국의 대테러전쟁으로 남부지역으로 몰려나가기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상 통치하던 집권세력이었다 [6].

2.3 탈레반의 대두

탈레반의 성장은 미국을 배후로 한 파키스탄 정부기관의 지원이 기인한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미국이 탈레반을 지원하는 속셈에는 냉전체제의 대립속에서 소련이 몰려가고 사분오열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민중의 강력한 지지와 종교적 이념 지원을 받는 주도세력이 등장하였으며, 1979년 이란혁명으로 미국과 적대적 관계의 인접 시아파정권 이란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수니파 정권이며, 미국의 지원을 받고 소련을 패퇴시킨 세력으로 지속적인 대리전전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있었다. 또한 이슬람 혁명 후 극단적인 반미 성향으로 돌아선 이란과 소련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삼각연대(Tripartite coalition)의 중요성 때문이다 [12]. 2001년을 정점으로 탈리반 정권은 민주적 투표로 집권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통성이 있는 정권으로 인정을 받았다. 국제사회의 공인은 몇몇 나라에서 받는 데 그쳤으나 아프간 내 지지율은 60%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탈리반은 1995년 파키스탄 정보국 ISI (Inter-Services Intelligence)의 지원으로 수단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환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영웅이며 탈레반의 후견자인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환영하고 그의 기반구축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13]. 아프가니스탄의 국토 대부분을 장악하고

집권세력으로 성장한 탈레반은 미국을 배경으로 한 파키스탄 ISI의 지원과 주변국의 이슬람 형제애, 알카에다 등을 활용한 정치세력으로 대두되었다. 탈레반의 정책시행은 '본래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오늘의 모든 문제의 해법을 꾸란에서 구하자'고 주장하며 [14]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슬람 셰이크왕국(Islamic Shaikhdom)의 건설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탈레반은 집권 시 아프가니스탄의 정화(Purification)를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치노선은 종교적 원리주의에 입각한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전통주의를 택하게 됨으로써 현대 문명의 차단과 사회복지의 외면 등 탄압과 폭정의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저항적인 아프가니스탄 민족의 중심체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기독교 세력에 민족과 종교적 자존심을 가지고 저항한 세력으로서 민중의 자긍심으로 비추어짐으로 인하여, 남부 칸다하르지방을 지역거점으로 새로운 세력을 확장하여, 여러 부족을 규합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집권 시 4만 5천명에 이르던 탈레반의 숫자는 미군의 소탕작전으로 2008년 1만에 불과하여 꺾임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조직원이 3만 6000명 이상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5].

3. 탈레반의 테러위협 분석

3.1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과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상황은 치안부재와 경제악화에 의한 민중의 생활고, 집권 카르자이(Humid Karzai)정권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행정능력의 상실 등으로 총체적인 혼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 카블지역을 포함하여 치안부재와 Terrorism이 난무하는 내전상태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중의 빈곤은 세계 최빈생황로 마약 밀매(2008년 GDP의 30%)와 불법 무력투쟁(2008년 유혈폭력사태 15-20건/일 발생)에 가담하는 민간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전쟁 수행으로 인한 군사작전의 공백으로 현정권의 영향력 축소와 탈레반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군벌의 각축으로 정치적 혼미상태를 보이고 있다 [12]. 미국의 9.11Terro

r에 대한 보복과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시작된 대테러전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몰락의 위기에 있던 탈레반은 새로운 저항력을 충전하고 2001년 이전의 상태회복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지난 10년 간 미국은 테러로부터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 등으로 모두 3조2280억 달러를 사용하고 미군과 동맹군 7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27]. 9.11 Terror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주요상황을 요약하면 <표1> 과 같다.

<표 1 > 9.11테러 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지 [28]

년도	월 일	주요내용	비고
2001년	9월 11일	9.11테러 발생	
	10월 7일	미국, 영국군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시	
	11월13일	탈레반 수도 카블에서 퇴각	
	12월 7일	연합군 칸다하르 함락, 오사마 빈 라덴 산악 도피	
	12월	국제평화유지군의 카블 지역 치안유지활동 시작	
2002년	6월13일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 하미드 카르자이 선출	
2003년	8월	다국적군 주둔지역 확대, 병력 증원	
2004년	1월 4일	대통령제 도입, 이슬람국가로 규정된 새 헌법안 합의	
	10월 9일	카르자이,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으로 선출	
2008년	9월	탈레반의 반격 최고조	
2009년	1월 30일	미 오바마 대통령 취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3.6만명/ 나토군 3.2만명	
	2월 17일	미군 중과 결정/ 전투 및 지원병력 1.7만 명 증파	
	6월 9일	미 해병대 첫 파병	
	10월20일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재선	한달 간 미군 58명 개전 후 최대 사망
	12월 1일	오바마 미 대통령 3만명 추가 파병하는 세전략 발표	

2010년	5월	알카에다 아프가니스탄 사령관 무스타파 알 야지드 미군 폭격으로 사망	
2011년	5월 1일	오바마 미 대통령 오사마 빈 라덴 사살 발표	
	6월 22일	오바마 미 대통령 미군 3만 3천명 2012년 여름까지 철군 발표	
	6월 이후	서방 연합국 철군 계획 발표	

(출처: 연합뉴스, 2011년 6월 23일 보도내용 재구성)

탈레반은 2012년 1월 3일 대변인 무자히드 자비올라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강력한 입지를 기반으로 이젠 다른 나라와 상호이해를 넓히기 위해 해외에 정치사무소를 설립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현재까지는 카타르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17]. 국제사회는 이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평화협상을 위한 대화체널로 반기는 분위기이다. 또한 이란 등 중동국가들의 정치자금 제공 등의 러브 콜이 잇따르고 있다 [15].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상황과 주변국가의 정세 변화에 따른 현재 탈레반의 입지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세계에서 인기가 없는 나라라는 점을 스스로 깨달았다. 아랍권 이슬람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인도는 물론이고 우방들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이 무시된 미국의 강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8].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말해 주듯이 안정화 과정에서도 국제적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로드맵이 미국의 의도대로 완성된다면 현 친미정권의 역량 강화로 국내가 안정되거나 아프가니스탄 국내 정파들 간에 협상을 통한 연합세력의 구성과 친미성향화, 탈레반과의 평화협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각기 다른 성향과 저항력을 가진 여러 민족으로 모자이크된 국가이다 [6]. 미국의 로드맵의 완성으로 국내외적인 테러위협이 줄어드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아프가니스탄 민족의 끈질긴 민족성과 저항의지, 현재

미군의 쿠란 소각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현지상황과 탈레반 영향력의 성장은 이런 기대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미국의 재정압박과 철군압력으로 현지 통제력이 상실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어 탈레반의 영향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우리에게 대한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우리 주둔군도 활동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3.2 탈레반 테러의 정치성

탈레반 테러리즘의 특징은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탈레반은 탄생과 대두과정에서부터 정치적이었으며, 투쟁방법도 정치성이 높은 테러를 자행한다. 탈레반의 형성에서부터 전국 대부분을 장악하고 수도 카불에 무혈입성하는 과정은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지형상 산악지역의 부족으로 몽친 퀘(Qwum) 세력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능숙한 게릴라전을 전개하였으며, 집권 후에도 강력한 내부통제와 민족 종교적 자존심을 내세운 전략적 통치이념으로 이슬람세계를 정치적으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성장과정에서 파키스탄 ISI를 매개로한 미국의 지원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의 이슬람 형제애를 활용하여 아프가니스탄 내의 최대 정파로 등장하였으며, 알카에다를 통한 이슬람 세계의 지원과 오사마 빈 라덴의 정착과정에서도 탁월한 정치력을 보였다. 집권 후 극단적인 율법의 적용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서방세계의 비난도 자국통치에 활용하였으며, 실권 후에는 저항을 위한 테러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폭탄 공격은 금한다.” “귀 입술 혀를 절단하는 것을 금한다.”는 정치적 행동강령을 발표하는 등 유회책으로 선회하여 주민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민중의 지지를 회복하였다.

탈레반의 투쟁과 저항의 최종 목적은 이슬람 셰이크 왕국(Islamic Shaikhdom)의 건설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카르자이정권을 몰아내고 2001년 미국과 전쟁 이전의 집권세력으로 재등장해야 하며, 현재의 당면과제는 미국 등 외국 주둔군의 철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집권 경험을 가진 정치적 무장세력인 탈레반은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주둔군 철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치적 충격행동에 주력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군사적 투쟁을 통해 영향지역을 확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세계적 홍보성 테러를 자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탈레반 테러의 성격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성있는 테러로서 미국과 동맹국가에 대하여 전략적 홍보에 가장 적합한 시간, 대상 및 장소, 방법 등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 주둔군의 동향이나 동맹군 자국내의 상황을 잘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테러행위를 야기할 것이다. 2010년 5월 뉴욕 타임스퀘어 차량폭탄테러 미수 사건의 배후가 탈레반이었던 점과 최근 야기되고 있는 쿠란 소각, 탈레반 시신에 대한 미군의 소변행위, 아프가니스탄인 16명이 희생된 미군 총기난사사건 등이 미군과 동맹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테러로 나타나고 있다. 탈레반의 홍보와 부추김, 시민들의 동요, 적대 테러행위로 혼미상태가 가중되고 있다.

3.3 알카에다와의 연계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관계는 현 아프가니스탄 상황의 원인과 결과이다.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서방세력에 대한 테러를 확산시켜나갔다 해도 알카에다가 특정한 국가에 예속되거나 그들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특히 미국의 보복과 응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9.11테러에 대하여 탈레반의 동의와 지원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19]. 그러나 9.11에 대한 응징과 보복을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은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탈레반의 알카에다에 대한 비호는 이슬람 형제애에 의한 이슬람테러조직의 보호이자 기독교 서방세력에 대한 저항의 일환이었다. 현재의 탈레반은 주변정세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변의 테러조직이나 이슬람국가들과 연계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남부지역의 파슈툰족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부족의 결사체 성격으로 내부적으로 다소간의 노선이나 투쟁방식에 이견이 노출된 바가 있으나, 탈레반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연계세력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내의 이슬람당(Hejib-i-Islami)과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TEHREK-I-Taliban Pakistan), 알카에다(Al-Qaeda) 등이다. 특히 알카에다와의 관계는 공생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탈레반은 정치기반을 유지하기위한 자금과 테러를 위한 정보와 기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알카에다는 남부지방 근거지의 보호와 테러 훈련기지

의 사용을 통해 중국 신장지역의 위구르지방, 우즈베키스탄, 체첸지역 등에서 유입되는 이슬람전사들을 받아 지속적인 테러전력을 충전하고 세계적인 테러의 허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연계는 지속될 것이며, 특히 탈레반의 국제테러에는 알카에다의 Network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세계적인 Terrorism Network를 구축하고 있는 알카에다의 본거지가 2009년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여객기 테러 미수 사건의 배후가 예멘의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조직(AQAP)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예멘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미국의 현지 차단작전 지원으로 예멘 정부군의 집중 공습을 받고 있다 [20]. 2011년 5월 1일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후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적인 Terrorism Network를 구축하고 있는 알카에다의 테러 경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변화는 사이버공간상의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과 훈련, 종교적 의식화, 점조직적 지원과 정보제공, 테러 지령 등이며 이슬람2-3세대를 중심으로 자생적 무슬림테러리즘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6].

4. 한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 논의

4.1 한국에 대한 테러 위협의 경향

2001년 9월 24일 대통령의 지원성명발표로 시작된 우리군의 파병은 의료와 공병지원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전개한 바 있었지만 2004년 김선일 살해 사건, 2007년 샘물교회 인질 사건 등과 같은 수많은 테러와 철수협박을 받고 2007년 12월 철수한 바 있다 [29]. 다시 미국의 재파병 요청으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시한으로 프르완주의 차리카르지역에 PRT(지역재건팀/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를 개설하고 있다. 역시 파병안에 아프가니스탄 지역 재건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교부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활동보장과 필요한 정찰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1], 부대명칭도 친구 또는 동료를 의미하는 "오쉬노(Ashena)"부대로 하였으나 이를 보는 이슬람권의

시각은 그리 곱지 않다. 이에 따라 재파병이 논의되던 2009년부터 위협이 가중되었으며, PRT개소 시부터 10여차례가 넘는 로켓탄 공격 등의 적대행위가 발생한 바 있고,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의 사살 후 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2012년 1월 현재 우리군은 아프가니스탄의 오쉬노부대의 350명을 포함하여 15개국에 1446명이 파병되어 PKO활동 등을 하고 있다 [22]. 유조선의 납치 등 돈을 목적으로 하는 해적테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동 이슬람 테러는 정치성을 띠고 있으며 우리나라 군대의 중동분쟁지역 파병과 관계가 있다.

파병 후 중동지역 현지에서 발생했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테러사건을 보면

- 3003년 11월 이라크 오무전기직원 고속도로 상에서 이동 중 피격, 2명 사망
-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김선일 무장단체에 피납 후 살해
- 2007년 3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단 23명 탈레반에 피납, 2명 살해
- 2009년 3월 예멘에서 관광객 자살폭탄테러로 4명 사망
- 2009년9월 예멘에서 업영선봉사활동 중 피납 후 살해 등이다 [23].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은 주로 2001년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결정된 시기부터 샘물교회 인질사건 후 철군이 이루어지기까지와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 논의시점부터 중동지역 파병시기에 집중되었으며 테러의 주된 명분은 군대의 철수와 기독교의 이슬람지역에 대한 포교활동 금지 등 이었다.

4.2 탈레반 테러 위협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 논의

아프가니스탄전황의 불확실성과 파병국가 내부의 여론 압력으로 각국이 철군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치와 카스피해 주변의 에너지자원의 개발 등으로 서방제국의 전면적인 철군이 쉽지만은 않은 전망이다. 따라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내의 서방 주둔군의 철군 여론 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테러 위협은 증가할 것이다.

테러리즘은 커다란 집단을 배경으로 한 소집단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이나 상징적인 목표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강탈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24]. 사

실상 현대사회에 있어서 테러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은 무제한에 이르고, 이를 모두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라 하는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주변 정세와 명분, 테러집단의 성향과 필요성, 테러용의조직의 동향 분석, 제기된 문제 등에 의한 위기의 고조 등의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례분석에 의한 학습효과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수집되거나 협조된 정확한 정보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 된다면 보다 정확한 예측과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탈레반의 테러위협 시기는 우리의 국내 환경으로 올 상반기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가 탈레반의 정치성있는 테러의 홍보전략과 합치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샘물교회 납치사건 시기와 같은 파병의 마지막해이며, 핵안보정상회담으로 서방제국의 국가정상들이 대부분 서울의 한 장소에 모이게 되고, EXPO의 개막으로 행사성격상 테러에 취약한 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계의 모든 언론의 초점은 여기에 집중되어 테러 효과를 극대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테러 가능 집단으로는 탈레반과 연계되어 한국 내에 테러거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불법체류 이슬람 세력을 주목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차별, 종교적, 문화적 불만과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수십만의 무슬림 불법체류자가 있고, 이들이 집단거주지와 소통공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25]. 지난해 2001년부터 17차례나 출입국하며 한국형 탈레반 조직 결성을 시도하고, 미군시설을 정탐하고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등 30여명을 집단 훈련한 바 있는, 미국중앙정보국(CIA)의 테러리스트명단에 올라 있는 파키스탄 탈레반 중간간부가 체포된바 있다 [26]. 또한 탈레반이 알카에다의 대외 Network를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마이슬라미야, 아부사예푸부 등 알카에다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테러조직의 국내 침투 기반조성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13].

예상되는 테러의 방법으로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가 주로 사용하는 인질의 납치나 폭발물에 의한 자살폭탄, 폭탄적재차량의 돌진이나 방치, 폭발물 설치 폭파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납치는 장시간 사건전개과정에서 충분한 선전 기회가 주어지며 석방의 대가로 부수적인 금전

이나 동료의 석방 등을 얻는 효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탈레반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납치대상으로는 해외여행 우리국민이나 파병중인 군인, 보도진 등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의 테러로는 폭발물의 사전 설치, 폭발물 적재 차량의 방치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실한 위해 가능물질의 유통관리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의 허술한 안전관리는 테러집단에 적당한 목표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된다. 또한 해외건설 현장이나 아프가니스탄 현지 오쉬노부대의 PRT에 무력충돌을 야기하기 위한 의도된 기습행동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오쉬노부대 활동 중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현지 주둔에 어려운 국면이 발생하고 철군여론이 비등해질 가능성이 있다.

테러대상으로는 탈레반이 민간인이 희생되는 테러는 금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표방한 적이 있으나 현재 탈레반의 테러는 무차별적이다. 그러나 현대테러리즘의 일반적 경향인 일반다중운집 민간시설에 대한 테러와 함께 상징성 있는 정부기관이나 미군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탈레반 테러가 정치성이 있고, 군 철수를 위한 여론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탈레반은 2007년 3월 샘물교회 선교단 23명을 납치하고 우리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활동자금의 확보, 우리군의 철수, 선교활동 금지 등의 요구사항을 달성하고 아무런 보복이나 제재를 당한 바가 없는 명분과 실리를 챙긴 경험을 가지고 있다.

4.3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 전망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탈레반 테러위협을 간단해 본다면 탈레반은 종교적 이념과 국제 정치구조상의 복잡한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를 유리한 국면으로 유도하고, 재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당면 과제로 국내 주둔군을 몰아내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테러리즘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제 테러리즘에 취약한 구조와 대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언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우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가능시기로는 서울핵안보정상회담, 여수EXPO개막이 있는 올해 상반기에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테러대상으로는 홍보성이 있는 국제행사관련 행사장이 되겠으나, 우리 군의 철수와 관계있는 국방부, 국회 등 국가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탈레반이 민간인에 대한 테러를 금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으나 상대적으

로 취약한 민간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를 배제 할 수 없다. 테러 방법은 국외에서는 여행이나 선교, 기업체 직원, 보도진 등에 대한 납치를 상정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폭탄테러를 예상할 수 있다. 테러조직은 국내 불법 체류 무슬림 세력을 주목해야 하며, 국외 테러로는 알카에다 Network를 감시해야 하고 국내 침투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테러리즘은 본질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기대될 때 발생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호하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게 된다. 탈레반은 우리에게 대한 테러경험과 우리의 대처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다. 따라서 탈레반의 궤를 중심으로 한 끈질긴 투쟁과 저항의 전통 및 현재의 테러리즘 성향,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의 군사 활동 진향, 철군을 앞둔 아프가니스탄 현지 상황과 세계핵안보정상회담, 여수EXPO 개막을 앞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는 탈레반의 철군을 위한 홍보성 테러의 타겟으로 우리에게 대한 테러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5. 결 론

탈레반의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내의 분쟁전황과 미국의 군사력에 의한 억제력, 그리고 한국의 국내상황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저항적 민족전통과 종교적 이념을 계승한 군사적 전투력을 갖춘 최대정파로서 테러의 성향이 정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는 우리군의 파병 논의와 이슬람권의 주둔시기에 주로 발생하였으며, 명분도 군대철수와 기독교 포교활동 금지 등이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내의 정세는 정치적 혼란과 군벌, 정파 간 주도권을 위한 내전상태이며 무차별적인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력에 의한 통제력은 축소된 상태로 철군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 미국의 공세에 밀렸던 탈레반은 전력을 재정비하여, 남부 칸다하르지방을 거점으로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토 전반으로 영향력을 회복하고 재집권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탈레반은 재집권을 위한 여건의 조성을

위해 아프가니스탄내 미국과 동맹국의 주둔군 철수 여론조성을 위한 홍보성 있는 테러전략을 구가 할 것이다.

올해 말로 파병기간이 마무리되는 우리나라는 3월 핵안보정상회담, 5월 EXPO개막 및 총선, 대선의 선거철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탈레반의 테러를 통한 철군여론조성전략에 우리나라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탈레반 테러홍보전략과 부합하며 과거 우리에게 대한 테러사례에 따른 학습효과이다.

따라서 올해 전반기는 탈레반에 의한 테러위협이 고조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세계언론의 초점이 될 국제행사의 안전대책에 탈레반 테러리즘의 위협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핵안보정상회담과 EXPO 행사기간의 상징성 있는 국가기관이나 국내 미국시설에 대한 자살 폭탄, 폭발물 적체차량 돌진이나 방치 테러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탈레반과 연계된 국내거점이 될 수 있는 이슬람권 불법체류집단,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잠입에 대한 관리 통제대책이 요구된다. 해외여행, 해외건설현장 등의 내국인 피납위협이 고조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오쉬노부대의 운용과 철수 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부방침을 조기 공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정형석(2002). 『왜 21세기 화두는 미국과 테러인가』 서울: 평민사, pp 35-37.
- [2] 이창용(2007).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서울: 대영문화사, pp 189-190.
- [3] 최기남(2005). "중동 Terrorism의 대두와 전망", 경호경비연구 제10호, 한국경호경비학회, p 410.
- [4] 국가정보원(2005). 『2004년도 테러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pp34-35
- [5] 국가정보원(2008). 『2007년도 테러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pp 25-26.
- [6] 다나카 사카이. 이웅현 역(2007).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서울: 전략과 문화, pp 196-197.
- [7] 박영국(2010).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운용 실태". 합참제42호.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8] 한국일보.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한국 겨냥 테러 일지,” 20011년 11월 3일자. 국제면.
- [9] 네이트 백과사전 등 아프가니스탄 역사관련 자료.
- [10]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홈 페이지.
- [11] <http://kr.blog.yahoo.com/donmany/1116625>, 2011. 12.1. 검색.
- [12] 인남식(2008).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테러리즘의 동향.” 외교안보연구원, pp 14-26.
- [13] 최진태(2006). 『알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 서울: 대영문화사, pp 20-21.
- [14] 이슬람연구소(1996). 『이슬람의 이상과 현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p 44.
- [15] 조선일보. “미군 철수 앞두고 탈레반 세력 커지자 카타르 이란, 앞다퉀 내가 지원하겠다.” 2012.1.6. 자.
- [16] 최기남(2007). “미국의 대외안보전략에 대응한 이슬람Terrorism의 진술적 진화”.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p 530.
- [17] 머니투데이 뉴스, 2012.1.4 자.
- [18] 최진욱(2002).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미관계의 전망』, 통일연구원, pp 6-8.
- [19] 존 L. 개디스/ 강규형 역(2004). 『9.11의 충격과 미국의 거대전략』. 경기도: 나남출판, p111.
- [20] 중앙일보. 2009.12.31. 14면.
- [21]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2010).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 [22] 뉴스시 2012.2.4 보도.
- [23] 한국일보. “미군도 아프간서 발 빼는데....오쉬노 부대 조기 철수 검토”. 2011.7.1.8면.
- [24] 이황우(2010). 『테러리즘』. 서울: 범문사, p 11.
- [25] 최기남(2008). “알카에다이즘의 한국내 침투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스포츠티서치 제19권 제4호 (통권109호), p 71.
- [26] 한국일보. “탈레반이 한국을 테러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2010.2.20 자.
- [27] 이테일리, “9.11 10년 미국은 아직도 전쟁 중”. 2011년 9월7일 자.
- [28] 연합뉴스. “9.11테러 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지.” 2011년 6월 23일자.
- [29] 신완교(2010). “중동지역 파병 한국군대상 인질테

러시 군 대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p 31.

[저자 소개]

최기남 (Choi, Kee-Nam)



1979년 2월 서울대 학사
 2000년 8월 고려대 석사
 2005년 2월 경기대 박사/경호안전학
 대통령경호실 25년 근무/이사관 명퇴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울세계핵안보정상회담 대통령실 경
 호처 자문위원

email : cknam1@yahoo.co.kr.